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영향요인*

이민수^{a**} · 신동호^b · 윤순덕^c

^a한국농수산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15)

^b코뮤니타스 대표 (대구광역시 동구 장동로 81 세창빌딩 2F)

^c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Minsoo Lee^a · Dongho Shin^b · Soon-Duck Yoon^c

^a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Jeonju, Korea

^bCEO, COMMUNITAS Co., Ltd., Daegu, Korea

^c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4,000 rural residents living in rural areas. Raw data was procured from the 'Survey on Rural Well-being in 2022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main results of the ordinal logit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non-farm households, female, immigrants, more educated, more healthy are more likely to be highly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the case of full-time farm households, more healthy are more likely to be highly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the case of part-time farm households, younger, married, more healthy are more likely to be highly perceived quality of life. Second, for all rural households(non-farmers, full-time farmers, and part-time farmers), local amenities and safety also had positive impact on perception of quality of life.

Key words: quality of life, rural residents, ordinal logit regression

1. 서론

우리나라의 농어촌 경제 구조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전통적인 농어업 부문은 농어촌의 경제 영역에서 축소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농촌의 자연환경에 기반한 여가·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부문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시장의 세계화 및 개방으로 인해 농어업에 기반을 둔 농어촌지역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은 젊은 청년층의 이농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촌은 붕괴의 위기에 직

면하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악화, 농외소득 기회 부족, 사회보장 제도 미흡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같은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악화에 대응하여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복지, 의료, 기초생활인프라, 문화 등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농어촌 정주 여건과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주요어: 삶의 질, 농촌주민,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4267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이민수) 전화: 063-238-9310, e-mail: mins000.lee@gmail.com

(2020-2024)’에서는 도농간의 삶의 질 격차 완화를 넘어 농어촌 지역 내 격차 해소와 다층적 특성을 가진 농촌주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4차 계획에서 정부는 농어촌의 복지서비스,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다각화 등에 대해 총 51.1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였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 2020).

이처럼 정부는 단순한 소득증대가 중심인 기존의 농업 중심 정책을 넘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농촌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즉 삶의 질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정책방향은 생산위주의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적으로 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최강화, 2012).

이 같은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생산공간으로 인식되던 농어촌은 도시민도 함께 교류·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김동훈, & 박혜진(2023)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공익가치가 크다가 인식하는 도시민의 비율은 2010년에 55.8%에서 2022년에 63.0%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자연 친화적 삶, 건강·휴식을 공간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농촌의 공익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민들은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보전, 여가공간, 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 향후에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환경문제(악취, 수질오염 등)는 농어촌이 가지는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정책변화와 국민의 농어촌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농어촌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연구(김진아, 변병설, & 조희선, 2015; 박대식, & 마상진, 2007; 박대식, & 최경환, 2002; 이태중, 송건섭, & 박철민, 2000)와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강희숙, & 이도희, 2004; 문승태, & 김소라, 2012; 이상호, 2008; 홍성효, 임준홍, & 이경주, 2021)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귀농인이 대상이거나(문승태, & 김소라, 2012),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주원, 2010; 홍성효 et al., 2021)로 전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한계를 벗어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주민의 다층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주민을 비농어가, 전업농어가, 겸업농어로 구분하여 이들의 일반적 특성, 가구특성, 지역여건을 파악한다. 둘째, 순서형 로짓회귀분석을 통해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개인특성 차원, 가구특성 차원, 지역특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순서형 로짓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어촌주민의 다층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를 비농어가, 전업농어가, 겸업농어로 구분하여 삶의 질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농어촌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개발자와 실무자에게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삶의 질’ 개념과 측정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연구자나 학문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명확하게 단일의 개념으로 정의를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연구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며, 웰빙, 복지, 행복 또는 만족의 개념과도 구별없이 사용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Gilbert, & Abdullah, 2004). Veenhoven(2000)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Veenhoven(2000)은 학문적 및 정책적 담론에서 ‘삶의 질’과 ‘웰빙’과 같은 용어의 사용은 증가되고 있지만,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와 학문분야에 따라 더욱 더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은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고, 다른 경우에는 시민의 행복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는 주거 조건이나 고용 기회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용어의 포괄성이다. 많은 경우 전반적이고 모든 차원을 고려한 ‘삶의 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의미는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과 이를 통한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결정을 위해서 ‘삶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학문분야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Veenhoven(2000)은 삶의 질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2개의 차원에 따른 4가지로 분류된 ‘삶의 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인생의 기회와 인생의 결과이며, 두 번째 차원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다.

Shucksmith, Cameron, Merridew, & Pichler(2009)는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를 활용하여 EU 국가들의 농촌과 도시주민의 삶의 질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Shucksmith et al.(2009)는 Veenhoven(2000)의 삶의 질 분류 스키마가 EQLS 접근법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삶의 영역의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 생활 조건과 자원에 대한 객관적 상황과 함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Shucksmith et al.(2009)의 삶의 질 개념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국가의 평균적인 삶의 질보다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개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삶의 질 개념이 가지는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삶의 영역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관점과 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윤곽을 제공한다.

Fahey, Nolan, & Whelan(2003)은 ‘삶의 질’은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걸쳐 생활조건과 자원에 대한 통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삶의 각 영역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반응하고 느끼는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Fahey et al.(2003)은 삶의 질을 소득에 초점을 둔 경제학적 관점을 넘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유럽사회의 전통을 반영하여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삶의 질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생활환경과 함께 개인이 삶의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효용’이

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으며,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서는 삶의 질이 상품, 여가 및 편의 시설의 현재와 미래 소비의 증가 함수로 가정된다(Brereton, Bullock, Clinch, & Scott, 2011). 효용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개인 소득을,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민소득(GNP)과 국내총생산(GDP)을 삶의 질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경제학자, 지리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은 국민 소득의 거시적 측정은 사회와 개인의 삶의 질과는 부분적으로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지표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Erikson, 1993). 즉, 이러한 경제학적인 단일 접근 방식은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공동체 가치나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경제 발전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Layard(2010)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주관적인 웰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적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Oswald, & Wu(2010)는 백만명 이상의 미국인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사용하여 웰빙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이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척도가 됨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 지표, 그리고 웰빙 인식과 같은 주관적 지표가 사용되어 왔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며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Pacione, 2003). 많은 경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상호보완적이므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표가 필요하다.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예: 박대식, & 마상진, 2007; 이상호, 2008; Bryden, 2010), 주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예: 강희숙, & 이도희, 2004; Shucksmith et al., 2009)가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연구들은(예: Brereton et al., 2011;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1) 들은 삶의 질을 단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단일 항목 측정은 적합성 문제를 가질 수 있다(Brereton et al., 2011). 그러나 단일 항목 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도는 미국, 영국 및 EU 기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예: Clark, & Oswald, 1994; Di Tella et al., 2001).

2.2.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희숙, & 이도희(2004)는 WHOQOL-BREF(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인특성, 가족여건, 물리적 환경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특성으로는 월소득,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직업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가족연건으로는 환자가 거주여부, 가족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측면에서는 산업단지 거주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순태, & 김소라(2012)는 귀농인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삶의 질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4가지 영역(가족관계, 자아실현, 경제활동, 지역환경)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삶의 질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별, 고향여부, 귀농기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원(2006)은 농촌 삶의 질을 19개 지표로 5개 차원(경제 생활 부문, 편리한 생활 부문, 안전 부문, 쾌적한 생활 부문, 복지교육문화 부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농촌 삶의 질이 지역의 환경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환경, 교육환경, 문화복지 환경, 사회생활환경, 생활인프라환경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원(2010)은 도시와 농촌주민의 역량과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삶의 질 만족도를 경제생활, 기초생활여건, 안전/건강, 생활환경 쾌적성, 복지·교육·문화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마을)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호(2008)는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하여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였다. 삶의 질 지표는 시군 차원에서의 통계자료 획득가능성, 객관적 평가 가능성, 정책 접근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삶의 질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삶의 질 지표를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항 로짓 모형을 통해 유형별 특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수, 유치원수, 약국수, 금융기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홍성호 et al.(2021)는 충청남도의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삶의 질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변인과 OECD의 주관적 웰빙과 관련한 권고 문항들을 이용한 수차·즉, 삶의 질

만족도, 일에 대한 가치, 행복감을 더하고 근심·걱정과 우울감을 빼 수치를 함께 고려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개인특성(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특성(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세대유형,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 지역기반시설 특성(생활인프라접근성, 문화인프라 접근성, 사회복지센터 접근성, 응급의료 접근성, 스포츠시설 접근성,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개인특성 측면에서는 남성, 50대, 저학력, 미혼일 경우 삶의 질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저소득, 2세대 이상 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 월세 거주에 삶의 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반시설 특성 측면에서는 도서관, 유치원, 종합병원, 경찰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ucksmith et al.(2009)는 유럽 삶의 질 조사(EQLS)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은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인식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개인적 특성(소득, 주택, 교육, 고용상태), 사회적관계(학교, 친구, 가족), 복지서비스 접근성이었다. 개인 특성, 사회적관계, 복지서비스 접근성에 따라 농촌과 도시의 삶의 질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reton et al.(2011)은 아일랜드의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1년과 2007년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삶의 질은 단일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인으로는 취업특성(취업형태, 비경제활동여부), 개인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가구소득, 부양자녀수, 주택비용, 이주 가구여부), 사회자본 수준(자원봉사활동 정도, 지역개발활동), 지역환경(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의료 접근성)이 설정되었다. 순서회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실업자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파트타임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이혼했을 경우에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guzturk(2008)은 도시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설정하였다. 불안 및 우울감과 관련된 14개의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후에 어떤 개인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월소득, 흡연여부, 체질량지수)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흡연자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개의 차원(개인특성 차원, 가구특성 차원, 지역환경특성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3. 농어촌주민의 다층적 특성

1990년 대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및 선진국들의 농어촌지역은 지역 경제, 부동산 및 주택 시장, 이동여건 등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농촌 인구는 극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사회적·지리적 측면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김정섭, & 김종인, 2017; Marsden, 2009; Smith, 2007; Woods, 2006).

현대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차별화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농업은 더 이상 농촌경제의 근간이 아니다. 농업은 농촌 경관을 형성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현재 농림어업 취업자는 5.35%로 2000년의 10%이상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마상진, & 박시현, 2021).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농촌 토지 이용의 96%가 농업(임업 포함)이지만, 농촌 고용의 13%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은 농촌 지역에서 총 부가가치의 6%만을 생산하고 있다(OECD, 2006).

둘째, 농촌에서 농업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농촌 공간에 대한 도시민의 새로운 요구와 농촌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Woods, 2006). 셋째, 농촌의 인구구성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도시민의 농촌 이주(귀농, 시골로 은퇴, 제2 주택 소유)와 외국 노동자의 이민,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농촌의 인구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Baylina, & Gunnerud Berg, 2010; Gallent, & Tewdwr-Jones, 2006; 김정섭, & 김종인, 2017; 이민수, & 박덕병, 2012).

넷째,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개인 이동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Moseley, & Owen, 2008). 이에 따라 통근 거리가 길어지고 농촌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농촌도 글로벌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에 따라 원거리 '쇼핑'이 가능해지면, 지역의 소매업 서비스가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농촌에서 비농업인의 비중이 중요해지는 것과 함께

농업인의 경우도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Oostindie, & van Broekhuizen, 2014). 농업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전업농가는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하는 겸업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겸업농들은 전업농가와 달리 복합취업 등 새로운 발전 경로로의 분화를 겪고 있다. 농가들은 농업소득의 감소에 대응하여 농업에 기반한 농가 활동을 농촌 발전경로에 따라 세 가지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다(Van der Ploeg, & Roep, 2003). 첫째는 '심화' 전략으로 고품질 농식품 생산 등을 통해 농업생산물 단위당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확장(broadening)' 전략으로 농촌관광 등 농업의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셋째는 '기반 재편(re-grounding)' 전략으로, 복합취업 등 영농 외 소득활동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에서의 인구 구성은 극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농업인의 비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경우도 농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 외 활동에서 소득을 확보하려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의 인구 구성은 현재 매우 다층적인 특성을 가지며, 생산과 소비활동에서 각자 추구하는 전략이 매우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다층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농어가와 농어가를 구분하여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또 농어가의 경우도 전업농어가와 겸업농어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도 구분하여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인식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연구이다.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의해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국가승인 통계이다(승인번호 제11403호). 본 조사는 다단층화집락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전국 읍면 4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의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응답자 4000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변인 구성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정한 변인은 <표 1>과 같다. 우선 종속변인인 ‘농촌주민 삶의 질 변화인식’은 5년 전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매우 좋아졌다’와 ‘매우 나빠졌다’의 경우는 사례수가 희박하여 본 연구에서는 3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것처럼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특성’이다. 개인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고향유무, 건강인식 등 6개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차원은 ‘가구특성’이다. 가구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인으로는 가족형태, 주택종류, 주택점유형태, 장애가구유무 등 4개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차원이다. 지역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인으로는 읍면여부, 지역환경인식, 지역경관인식, 지역안전인식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였다. 지역환경인식은 5가지 하위요인(대기, 수질, 토양, 소음, 악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경관인식은 3가지 하위요인(마을안길 경관, 마을진입로 경관, 마을원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안전인식은 4가지 하위요인(범죄, 사고, 자연재해, 화재)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지역환경인식, 지역경관인식, 지역안전인식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것처럼 보건·복지, 교육인프라, 문화·여가인프라, 생활인프라 등에 대한 지역특성이 삶의 질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 변인들의 경우 변인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된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의 만족도를 대리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이들 만족도 문항의 경우도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구특성, 지역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질 변화인식은 단일문항의 순서형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순서형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순서화되어 있는 경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종속변수가 순서화되어 있을 경우 변수의 다항선택성과 이산성이 일반 선형회귀식이 가진 기본가정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순서형 로짓모형은 이를 회귀방정식에 적합하도록 변환의 과정을 거친 계량분석방법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것처럼 농어가와 비농어가, 그리고 농어가의 경우도 전업농어가와 겸업농어가에 따라 삶의 양식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로짓회귀분석 시 응답자를 3개 집단(비농어가, 전업농어가, 겸업농어가)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셋째, 도출된 로짓모형을 토대로 독립변인의 변화가 종속변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승산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눈 승산비(odds ratio)를 활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승산비는 단순히 비율이나 확률을 의

<표 1> 변인구성 및 변인 설명

구분	변인	변인 설명	구분	변인	변인 설명
종속변인	삶의질 변화인식	1:나빠짐, 2:보통, 3:좋아짐	읍면여부	1:면, 2:읍	
	성별	0:여, 1: 남		환경인식	1:매우나쁨~5:매우 좋음
	연령	-		-5개하위요인(대기, 수질, 토양, 소음, 악취)	
개인 특성	학력	1:무학, 2:초등, 3:중등, 4:고등, 5:대학이상	지역 특성	경관인식	1:매우나쁨~5:매우 좋음
	배우자유무	0:없음, 1:있음		-3개하위요인(마을안, 마을진입로, 마을원경)	
	고향여부	0:선주민, 1:이주민		안전인식	1:전혀아님~5:매우 안전
	건강인식	1:매우나쁨~5:매우 좋음		-4개하위요인(범죄, 사고, 자연재해, 화재)	
	가족형태	1:1인가구, 2:1세대가구, 3:2세대이상		만족도	1:매우불만족~5:매우만족
가구 특성	주택종류	1:단독, 2:아파트/연립	-6개하위요인(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문화·여가여건,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여건)	1:매우불만족~5:매우만족	
	주택점유형태	1:자가, 2:전·월세			
	장애가구원유무	0:없음, 1:있음			

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확률에 비하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비율로 해석된다(Allison, 2012). 순서형로지모형에서도 특정 범주보다 높은 종속변인의 누적확률(cumulative probability)을 승산비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순서형로지모형의 경우도 각 독립변인에 대한 승산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산출된 승산비는 이항로지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독립변인의 변화가 종속변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Armstrong, & Sloan, 1989; Borooah, 2002).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개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성이 57.6%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는 여성 비율이 67.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업농의 경우는 남성이 53.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는 80대 이상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70대가 28%, 60대가 23.8%의 순이었다. 비농업인은 40대이하와 80대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농은 70대가, 겸업농은 50대와 6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이 3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이 21.8%, 무학이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는 무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농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율이, 겸업농은 고등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5.5%로 없는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농과 겸업농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고향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선주민인 경우가 57.1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의 이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농과 겸업농은 선주민인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정도는 2.94점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겸업농의 건강상태 인식은 3.3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농어가는 2.81로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가구 특성은 <표 3>과 같다. 가족형태는 1세대인 경우가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1인 가구가 38.0%, 2세대이상인 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의 경우는 1인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농은 1세대의 비율이, 겸업농은 2세대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의 경우 단독 주택이 84.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는 아파

<표 2> 응답자의 개인 특성

	구분	비농어가	전업농어가	겸업농어가	전체
성별	여성	1342(67.3)	733(46.6)	226(52.8)	2301(57.6)
	남성	652(32.7)	840(53.4)	202(47.2)	1694(42.4)
연령	40대이하	200(10.0)	31(2.0)	25(5.8)	256(6.4)
	50대	232(11.6)	122(7.8)	73(17.1)	427(10.7)
	60대	358(18)	448(28.5)	145(33.9)	951(23.8)
	70대	423(21.2)	567(36)	127(29.7)	1117(28)
	80대이상	781(39.2)	405(25.7)	58(13.6)	1244(31.1)
학력	무학	529(26.5)	228(14.5)	41(9.6)	798(20.0)
	초등	602(30.2)	645(41.0)	156(36.4)	1403(35.1)
	중등	239(12.0)	316(20.1)	64(15)	619(15.5)
	고등	409(20.5)	325(20.7)	135(31.5)	869(21.8)
	대졸이상	215(10.8)	59(3.8)	32(7.5)	306(7.7)
배우자유무	있음	792(39.7)	1099(69.9)	328(76.6)	2219(55.5)
	없음	1202(60.3)	474(30.1)	100(23.4)	1776(44.5)
고향여부	선주민	891(44.7)	1097(69.7)	294(68.7)	2282(57.1)
	이주민	1103(55.3)	476(30.3)	134(31.3)	1713(42.9)
건강인식정도(1~5점)		2.81	3.01	3.31	2.94

트/연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농과 겸업농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가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는 전월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농과 겸업농은 자가보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구원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애가구가 없는 경우는 82.6%, 있는 경우는 17.4%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원 유무에 대해서는 비농어가, 전업농, 겸업농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역환경 특성은 <표 4>와 같다. 거주지역의 경우

면에 거주하는 경우가 75%, 읍에 거주하는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비농어가는 읍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농과 겸업농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기에 대한 인식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토양이 4.02점, 수질이 3.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해서는 4점대 정도로 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소음과 약취는 3.66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업농의 경우는 토양과 소음에 대한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겸업

<표 3> 응답자의 가구 특성

구분		비농업인	전업농	겸업농	전체
가족형태	1인가구	1038(52.1)	411(26.1)	70(16.4)	1519(38.0)
	1세대	533(26.7)	862(54.8)	205(47.9)	1600(40.1)
	2세대이상	423(21.2)	300(19.1)	153(35.7)	876(21.9)
주택형태	단독	1429(71.7)	1528(97.1)	401(93.7)	3358(84.1)
	아파트/연립	565(28.3)	45(2.9)	27(6.3)	637(15.9)
주택점유형태	자가	1612(80.8)	1555(98.9)	416(97.2)	3583(89.7)
	전월세	382(19.2)	18(1.1)	12(2.8)	412(10.3)
장애가구원 유무	있음	345(17.3)	272(17.3)	78(18.2)	695(17.4)
	없음	1649(82.7)	1301(82.7)	350(81.8)	3300(82.6)

<표 4> 응답자의 지역환경 특성

구분		비농업인	전업농	겸업농	전체
읍면	면	1344(67.4)	1300(82.6)	352(82.2)	2996(75.0)
	읍	650(32.6)	273(17.4)	76(17.8)	999(25.0)
환경인식	대기	4.00	4.19	4.23	4.10
	수질	3.91	4.04	4.03	3.97
	토양	3.94	4.11	4.08	4.02
	소음	3.54	3.79	3.78	3.66
	약취	3.59	3.70	3.78	3.66
경관인식	마을안길	3.75	3.95	3.93	3.85
	마을진입로	3.70	3.93	3.91	3.81
	마을원경	3.65	3.92	3.90	3.78
안전인식	범죄	3.81	3.94	3.99	3.88
	사고	3.49	3.65	3.66	3.58
	자연재해	3.58	3.71	3.72	3.65
	화재	3.44	3.51	3.43	3.46
만족도	보건의료	3.08	3.01	2.94	3.04
	복지서비스	3.02	3.04	2.97	3.02
	교육여건	2.94	2.88	2.82	2.90
	문화·여가	2.89	2.81	2.78	2.85
	기초생활기반	3.10	3.13	3.07	3.11
경제활동여건	2.91	3.07	3.08	2.99	

농은 대기상태와 악취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마을안길에 대한 인식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을진입로가 3.81점, 마을원경이 3.7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관인식은 3.7~3.8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업농과 겸업농은 비농어가에 비해 경관에 대한 인식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점수가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재해가 3.65, 사고가 3.58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범죄와 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에 대해서는 비농어가에 비해 겸업농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는 기초생활기반에 대한 만족도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가 3.04점, 복지서비스가 3.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육여건, 문화·여가, 경제활동여건은 3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만족도의 경우 비농업인, 전업농, 겸업농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여건은 비농어가에 비해 전업농과 비농업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순서형 로짓회귀분석 결과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건강인식, 지역특성의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모형의 적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VIF값을 통한 다중공선성을 검정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간에 높은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면 회귀분석의 결정계수 값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 이하라면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결정계수 값의 과대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정결과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VIF값이 전반적으로 3을 넘지 않아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변인들 상호간에 선형관계가 형성하지 않아 분석결과에 대한 과대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해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농어촌주민 유형별(비농어가, 전업농어가, 겸업농어가)로 구분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추정결과, x2통계량은 모형 1(비농어가 모형)은 633.1, 모형 2(전업농어가 모형)는 382.3, 모형 3(겸업농어가

모형)은 163.0으로 나타나, 3개의 모형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을 나타내는 Cox, & Snell R2는 모형 1(비농어가)이 .275, 모형 2(전업농어가)가 .218, 모형 3(겸업농어가)가 .318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Nagelkerke R2의 경우도 비농업인 모형이 .315, 전업농어가 모형이 .248, 겸업농어가 모형이 .363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비농어가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농어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성별과 건강인식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1~10% 유의수준에서, 고향여부는 5%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삶의 질, 학력이 높을수록, 선주민보다는 이주민일수록,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삶의 질 변화인식이 상승할 비율을 나타내는 승산비(Odd Ratio)를 살펴보면, 건강인식과 성별이 각각 2.6배와 1.2배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5%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에 비해 2세대 이상의 가구가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읍면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식의 경우는 수질상태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인식에서는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식에서는 자연재해와 화재에 대한 안전인식이 5%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보건의료 만족도가 5% 유의수준에서 경제활동여건 만족도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지역보다는 면지역 주민일수록, 수질의 환경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연재해와 화재로 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의 보건의료와 경제활동여건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 변화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2(전업농어가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농어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건강인식이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개인 특성 변인들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농여가의 경우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삶의 질 변화인식이 상승할 비율을 나타내는 승산비(Odd Ratio)를 살펴보면, 건강인식은 2.4배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가구특성의 경우 어떤 변인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가구특성의 경우는 전업농여가의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읍면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식의 경우는 수질상태가 1% 유의수준, 소음이 10% 유의수준에

〈표 5〉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변화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

	모형 1(비농여가)			모형 2(전업농여가)			모형 3(겸업농여가)				
	B	Wald	OR	B	Wald	OR	B	Wald	OR		
상수항1	5.290	86.4***		4.414	23.74***		4.289	7.35***			
상수항2	7.888	180.13***		6.918	56.73***		7.235	20.1***			
개인특성	성별(여)	.220	4.26**	1.246	-.066	0.32	.936	.308	2	1.360	
	연령	-.004	0.63	.996	-.002	0.12	.998	-.024	2.83*	.976	
	학력 (ref=대졸이상)	무학	-.551	5.09**	.576	-.078	0.06	.925	-.227	0.13	.797
		초등	-.471	4.59**	.624	.362	1.53	1.436	.824	2.95*	2.279
		중등	-.667	9.46***	.513	.235	0.65	1.265	.328	0.47	1.389
	고등	-.335	3.66*	.715	.151	0.28	1.162	.461	1.25	1.586	
	배우자유무(있음)	.017	0.01	1.017	-.203	0.84	.817	.895	5.72**	2.447	
	고향여부(선주민)	-.248	5.13**	.780	-.109	0.91	.897	.072	0.09	1.075	
	건강인식	.946	258.04***	2.577	.855	190***	2.352	.965	51.69***	2.626	
가구특성	가족형태 (ref=2세대이상)	1인가구	-.375	5.42**	.688	-.244	1.38	.783	.315	0.57	1.371
	1세대	-.049	0.1	.952	.026	0.03	1.027	.012	0	1.012	
	주택종류(단독)	.225	2.64	1.253	.409	1.72	1.505	.165	0.12	1.179	
	주택점유형태(자가)	.131	0.94	1.140	-.153	0.1	.858	-.366	0.33	.694	
	장애가구여부(있음)	.105	0.69	1.111	.037	0.08	1.038	.260	0.94	1.298	
지역특성	읍면(면)	.369	10.85***	1.446	.318	5.21**	1.374	-.176	0.34	.839	
	환경인식	대기	.063	0.63	1.065	.112	1.67	1.119	.195	1.1	1.216
		수질	.253	7.92***	1.288	.275	8.85***	1.317	.269	2	1.309
		토양	.014	0.02	1.014	.072	0.55	1.075	.392	3.63*	1.480
		소음	-.033	0.31	.968	.103	2.75*	.902	-.158	1.61	.854
		약취	-.042	0.44	.959	-.085	1.75	.918	.115	0.67	1.121
	경관인식	마을안	.111	1.44	1.117	.042	0.21	1.043	-.309	2.11	.734
		마을진입로	.105	1.34	1.110	.005	0	1.005	-.159	0.58	.853
		마을원경	-.012	0.02	.988	.116	1.82	1.123	.142	0.58	1.152
	안전인식	범죄	-.013	0.02	.988	-.070	0.69	.932	-.239	1.8	.787
		사고	.030	0.18	1.030	-.071	0.83	.932	-.129	0.73	.879
		자연재해	.161	4.35**	.851	.006	0.01	1.007	.224	1.74	1.252
		화재	.199	5.55**	1.220	.124	2.12	1.132	.232	1.66	1.261
	만족도	보건의료	.166	5.68**	1.180	.107	1.94	1.113	.001	0	1.001
		복지서비스	.060	0.67	1.062	.039	0.23	1.040	.134	0.56	1.143
		교육	-.071	0.78	.932	-.077	0.81	.926	-.049	0.06	.952
		문화·여가	.001	0	1.001	-.106	1.86	.900	-.181	1.01	.834
기초생활기반		.099	2.58	1.104	.141	4.79**	1.151	.319	5.85**	1.375	
경제활동여건		.270	18.27***	1.310	.213	10.87***	1.238	.035	0.06	1.036	
-2Log Likelihood(x2)	3415.54(633.1***)			2899.42(382.3***)			723.89(163.0***)				
Cox & Snell R2	.275			.218			.318				
Nagelkerke R2	.315			.248			.363				

서 양(+)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인식에서는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식의 경우에도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대중교통 등의 생활인프라 만족도가 5% 유의수준에서, 경제활동여건 만족도가 1% 유의수준에서 양(+)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농어가는 읍지역보다는 면지역 주민일수록, 수질의 환경과 소음 환경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의 생활인프라와 경제활동여건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 변화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3(겸업농어가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농어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은 10% 유의수준에서 부(-)³⁾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5% 유의수준에서, 건강인식은 1% 유의수준에서 양(-)⁴⁾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삶의 질 변화인식이 상승할 비율을 나타내는 승산비(Odd Ratio)를 살펴보면, 건강인식과 배우자유무가 각각 2.6배와 2.4배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가구특성의 경우 어떤 변인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가구특성의 경우는 전업농어가의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읍면은 10% 유의수준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식의 경우는 토양상태가 10% 유의수준에서 양(+)⁵⁾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인식에서는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식의 경우에도 삶의 질 변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대중교통 등의 생활인프라 만족도가 5% 유의수준에서 양(+)⁶⁾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겸업농어가의 경우 토양 환경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의 생활인프라와 경제활동여건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 변화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승인 통계인 ‘2022 농어

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속변인으로는 ‘농촌주민 삶의 질 변화인식’을 설정하였다. 이 변인은 5년 전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좋아졌다’와 ‘매우 나빠졌다’의 경우는 사례수가 희박하여 3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것처럼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특성’이다. 개인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고향유무, 건강인식 등 6개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차원은 ‘가구특성’이다. 가구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인으로는 가족형태, 주택종류, 주택점유형태, 장애가구유무 등 4개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차원이다. 지역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으로는 읍면여부, 지역환경인식, 지역경관인식, 지역안전인식을 설정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가 순서화되어 있는 경우 적합한 분석방법인 순서형 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것처럼 농어가와 비농어가, 그리고 농어가의 경우도 전업농과 겸업농에 따라 삶의 양식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로짓회귀분석 시 응답자를 3개 집단(비농어가, 전업농어가, 겸업농어가)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순서형로짓회귀분석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개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 3개의 모형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를 나타내는 Cox, & Snell R²은 .218~.318, Nagelkerke R²은 .248~.365로 나타나 3개의 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 1(비농어가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특성 차원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삶의 질, 학력이 높을수록, 선주민보다는 이주민일수록,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 차원에서는 1인 가구에 비해 2세대 이상의 가구가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환경특성 차원에서는 읍지역보다는 면지역 주민일수록, 수질의 환경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연재해와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의 보건의료와 경제활동여건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 변화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형 2(전업농어가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특성 차원에서는 전업농어가의 경우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차원에서는 어떤 변인들도 전업농어가의 삶의 질 변화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 차원에서는 읍지역보다는 면지역 주민일수록, 수질 환경과 소음 환경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의 생활인프라와 경제활동여건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 변화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형 3(겸업농어가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특성 차원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차원에서는 어떤 변인들도 겸업농어가의 삶의 질 변화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 차원에서는 토양 환경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의 생활인프라와 경제활동여건에 만족할수록 겸업농어가의 삶의 질 변화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어촌주민의 농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인구구성은 극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주민의 다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Brereton et al., 2011; Marsden, 2009; Woods, 2006)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구성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3개의 모형 모두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이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Oguzturk, 2008; Shucksmith et al., 2009; Veenhoven, 2000)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농어가와 겸업농어가의 경우는 개인특성이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업농의 경우는 개인특성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농어가는 달리 비농어가와 겸업농어가의 경우는 삶의 질 인식이 개인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비농어가와 겸업농어가는 매우 다층적이고 이질적 특성을 가지는 하위 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농어가와 겸업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3개 모형에서 모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보다는 환경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Brereton et al.(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는 도시민의 쾌적한 농촌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민은 농촌의 쾌적함을 즐기기 위해 농촌을 방문하거나 농촌에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농촌으로의 도시민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의 환경을 쾌적하게 보전·유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다섯째,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3개 모형에서 모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주민의 다층적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농촌주민들에게 경제활동 여건 개선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구특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구특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Brereton et al., 2011; 홍성호 et al., 2021)와 차이를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가 가구단위로 수집되는 한계때문으로 사료된다. 가구특성으로는 4개의 변인만 고려하였고, 농촌의 경우는 단독주택과 자가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택관련 2개의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명확하게 기구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속변수로 설정된 삶의 질 변화인식은 단일 항목으로만 측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해 단일 항목 측정은 척도의 적합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Bertrand and Mullainathan, 2001). 따라서 향후에는 삶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WHOQOL-BREF(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및 유럽 삶의 질 조사(EQLS) 지표 등을 토대로 다중 문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Shucksmith et al.(2009)에 의하면 낙후된 농촌지역일수록 비물질적인 요소인 공동체, 참여 권한부여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 확대가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U는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서 해당 지역의 농촌주민에 대한 권한부여 및 참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회자본과 관련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참고 문헌

1. 강희숙, & 이도희. (2004).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충남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16(1), 201-225.
2. 김동훈, & 박혜진. (2023).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21.
3. 김정섭, & 김종인. (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1), 33-48.
4. 김주원. (2006). *농촌주민 삶의 질 실태와 향상방안*(연구보고서 06-25). 춘천시: 강원발전연구원.
5. 김주원. (2010). 지역역량체계 분석과 진단을 통한 지역 발전방향: 도시와 농촌지역주민 역량과 삶의 질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83-305.
6. 김진아, 변병설, & 조희선. (2015). 주민의 삶의 질 분석-주관적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149-169.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8. 마상진, & 박시현. (2021). 2020 농림어업 고용 동향 분석 KREI 현안분석.
9. 문승태, & 김소라. (2012). 귀농인의 삶의 질 인식 수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1-21.
10. 박대식, &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
11. 박대식, &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R444). 농촌경제연구원.
12. 이민수, & 박덕병.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1137-1170.
13. 이상호. (2008).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한 농어촌 지역별 유형분류 및 요인분석. *농촌경제* 31(4), 33-48.
14. 이태종, 송건섭, & 박철민. (200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분석평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75-92.
15. 최강화. (2012). 농촌 삶의 질 영향 요인의 인과구조 분석. *농촌경제* 35(1), 137-161.
16. 홍성효, 임준홍, & 이경주. (2021).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 SOC 서비스 격차분석: 충청남도를 사례로. *LHI 저널* 12(4), 61-79.
17. Allison, P. D. (2012).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 Theory and application*. Cary, NC: SAS Institute.
18. Armstrong, B. G., & Sloan, M. (1989). Ordinal regression models for epidemiologic data.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9(1), 191-204.
19. Baylina, M., & Gunnerud Berg, N. (2010). Selling the countryside: Representations of rurality in Norway and Spain.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7(3), 277-292.
20. Borooah, V. K. (2002). *Logit and probit: Ordered and multinomial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21. Brereton, F., Bullock, C., Clinch, J. P., & Scott, M. (2011). Rural change and individual well-being: The case of Ireland and rural quality of lif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8(2), 203-227.
22. Bryden, J. M. (2010). Using system dynamics for holistic rural policy assessment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for evaluation of comparative policy efficiency at regional level. In *Rural development: Governance, policy design and delivery* (pp. 475-488). Ljubljana, Solvenia: The 118th seminar of the EAAE.
23. Clark, A. E., &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104(424), 648-659.
24. Di Tella, R.,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335-341.
25. Erikson, R. (1993). Descriptions of inequality: The Swedish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In M. Nussbaum &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26. Fahey, T., Nolan, B., & Whelan, C. T. (2003). *Monitoring quality of life in Europe*. Luxembourg, Europ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7. Gallent, N., & Tewdwr-Jones, M. (2006). *Decent homes for all: Planning's evolving role in housing provision*. London: Routledge.
28. Gilbert, D., & Abdullah, J. (2004). Holidaytaking and the sense of well-be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1), 103-121.
29. Layard, R. (2010).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Science*, 327(5965), 534-535.
30. Marsden, T. (2009). Mobilities, vulnerabilities and sustainabilities: Exploring pathways from denial to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49(2), 113-131.

31. Moseley, M. J., & Owen, S. (2008). The future of services in rural England: The drivers of change and a scenario for 2015. *Progress in Planning*, 69(3), 93-130.
32. OECD. (2006).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Paris: OECD.
33. Oguzturk, O. (2008).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in rural and urban populations. *Clinical and Investigative Medicine*, 31(6), E346-E350.
34. Oostindie, H., & van Broekhuizen, R. (2014). Rural governance and the unfolding of nested markets in Europe. In *Rural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new markets* (pp. 115-130). London: Routledge.
35. Oswald, A. J., & Wu, S. (2010). Objective confirmation of subjective measures of human well-being: Evidence from the USA. *Science*, 327(5965), 576-579.
36. Pacione, M. (2003). Urban environmental quality and human wellbeing: A social geographical perspectiv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5(1-2), 19-30.
37. Shucksmith, M., Cameron, S., Merridew, T., & Pichler, F. (2009). Urban-rural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ross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tudies*, 43(10), 1275-1289.
38. Smith, D. (2007). The changing faces of rural populations: (Re) fixing the gaze or eyes wide shut? *Journal of Rural Studies*, 23(2), 275-282.
39. Van der Ploeg, J. D., & Roep, D. (2003). Multifunctionality and rural development: The actual situation in Europe. In *Multifunctional agriculture: A new paradigm for Europea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p. 37-54). Hampshire, England: Ashgate.
40. Veenhoven, R.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41. Woods, M. (2006). Redefining the 'rural question': The new 'politics of the rural' and social policy.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0(6), 579-595.



Dr. Minsoo Le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regional policy. Address: (55068) #1515 Kongjwi-Patjwi-ro, Wansan-gu, Jeonju-si, South Korea
E-mail: minsooo.lee@gmail.com
phone) 82-63-238-9310



Mr. Dongho Shin is the CEO of COMMUNITAS Co., Ltd. in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rural surveys, statistical analysis, and social research. Address: (41257) 2F, Sechang Building, 81 Jangdeung-ro, Dong-gu, Daegu, South Korea
E-mail: isle@communitas.kr



Dr. Soon-Duck Yoon is a Senior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the rural welfare, urban to rural migration, and rural aging.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rdaysd@korea.kr

Received 15 August 2023; Revised 09 September 2023; Accepted 20 September 2023